

<독도사랑 웹툰>

함께

(together)

온 새 미 로

## ‘아주 솔직한 민서의 서문’

온새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같은 반 친구 현경이가 세원이라 함께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처음 본 것이 5월 초반이었다. 솔직히 중간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공부는 안하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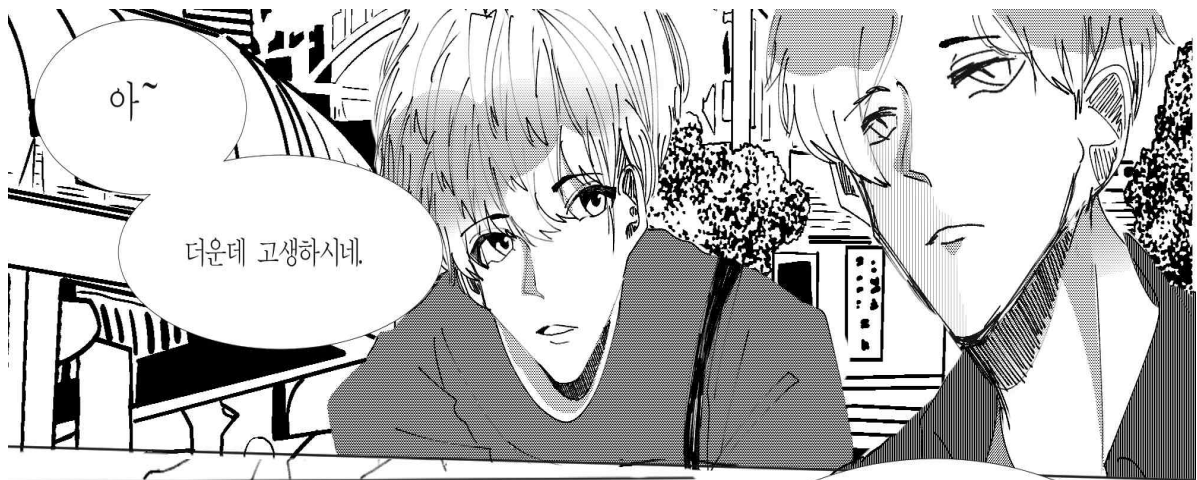
중간고사 후 독도교육주간 행사가 있다고 해서 회의실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그 행사 자체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역사 선생님께서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는 과제를 내주셔서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해야 했다. 회의실에서 독도 사랑 부채와 책갈피를 만들었다. 책갈피를 꾸미기 위해 그림을 한참 그리고 있었는데 현경이가 내 어깨를 두드리더니 “민서야 너 참 그림 잘 그린다. 사실 우리가 온새미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웹툰을 그려 인터넷에 연재하자는 의견이 나왔어. 관심 있으면 우리랑 함께 그림 그려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았고, 잘 그린다는(?) 칭찬도 꽤 들었던 나이지만 현경이의 제안은 귀찮았다. 그런데 독도 웹툰을 그리면 독도사랑 실천 과제를 저절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기에 나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웹툰 그리기를 시작했고, 온새미로 친구들과 내용을 구성하고 캐릭터 만들어 완성 시켰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독도사랑을 실천했다고 칭찬해주셨다. 온새미로 친구들과 함께 만든 웹툰이 나의 웹툰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사실 사회문제에 관심 없이 그림만 그리던 나에게 ‘의식’이라는 것이 생긴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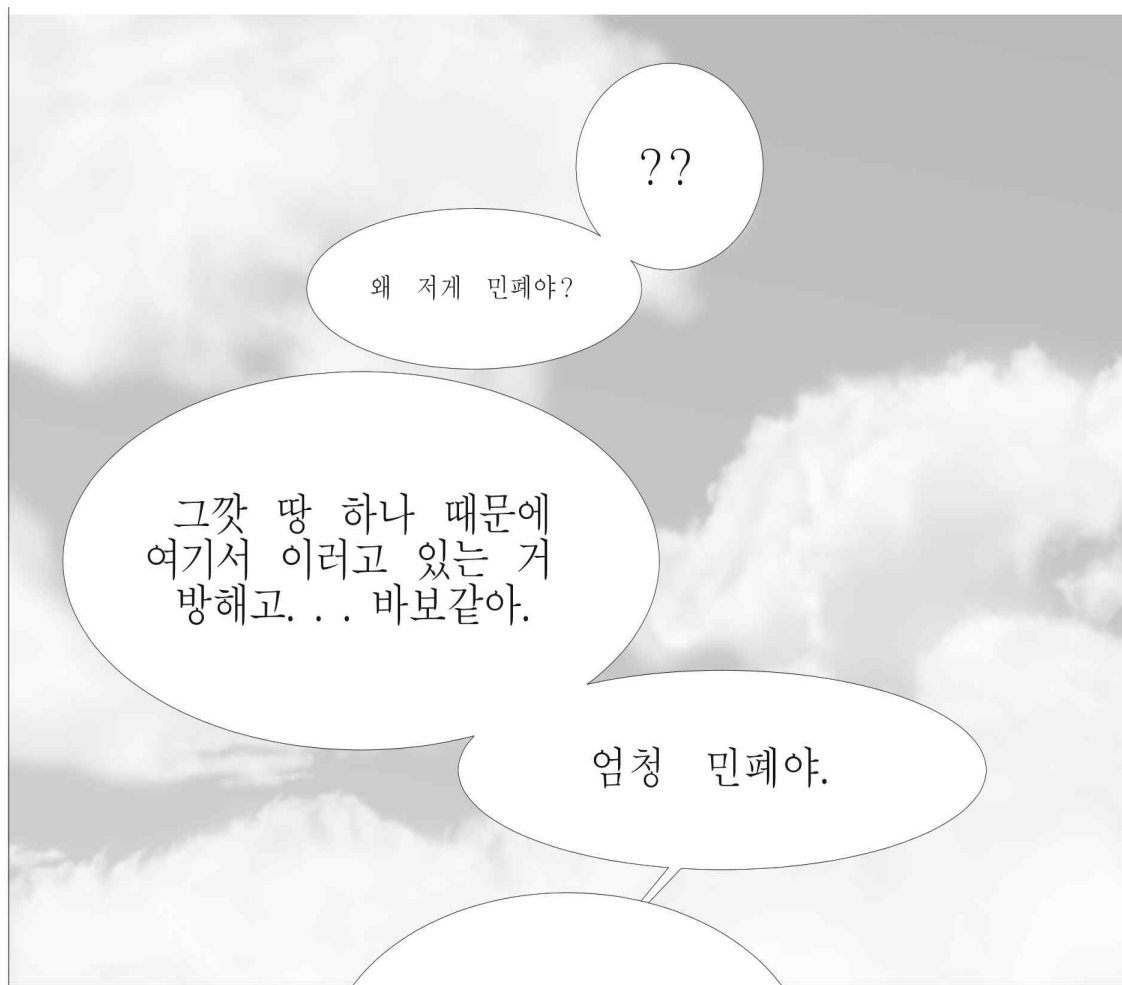
선생님께서 내가 그린 웹툰을 온새미로 활동에 반영해도 되냐고 물으셨을 때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온새미로 친구들이 없었으면 이런 웹툰을 그릴 생각은 못했을 것이고 내용 대부분이 친구들과 상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웹툰 제목을 ‘함께’로 정했다. 웹툰 속의 등장인물처럼 한때 나는 온새미로 친구들이 중간고사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의 매일 독도사랑 실천 행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다. 독도에 관심이 없었던 내가 이렇게 독도 웹툰을 그리게 된 것을 보면 말이다. 외로운 섬 독도는 누구 혼자서 지킬 수 없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한다.

이 웹툰을 보는 독자여!!! 함께 독도 사랑을 실천합시다.











빨리빨리 설명하고 끝내라...

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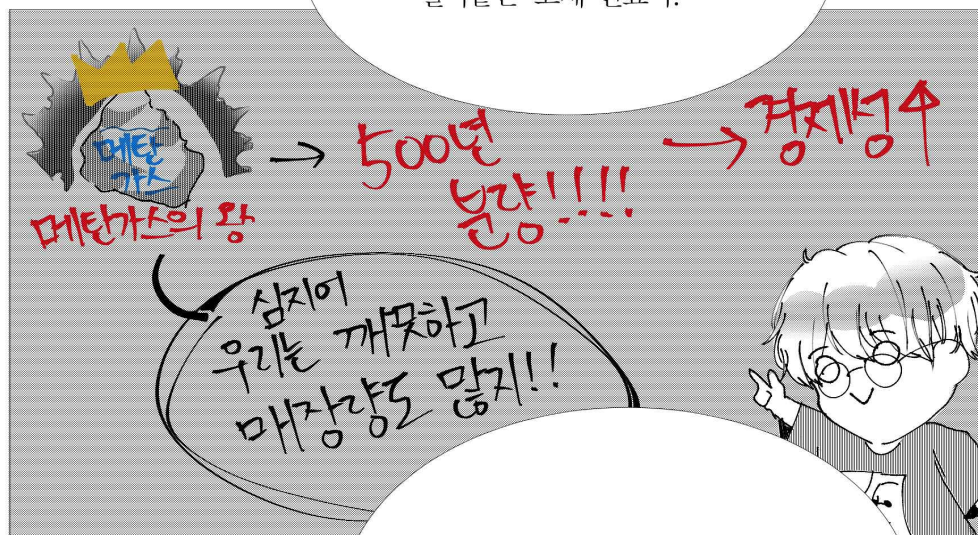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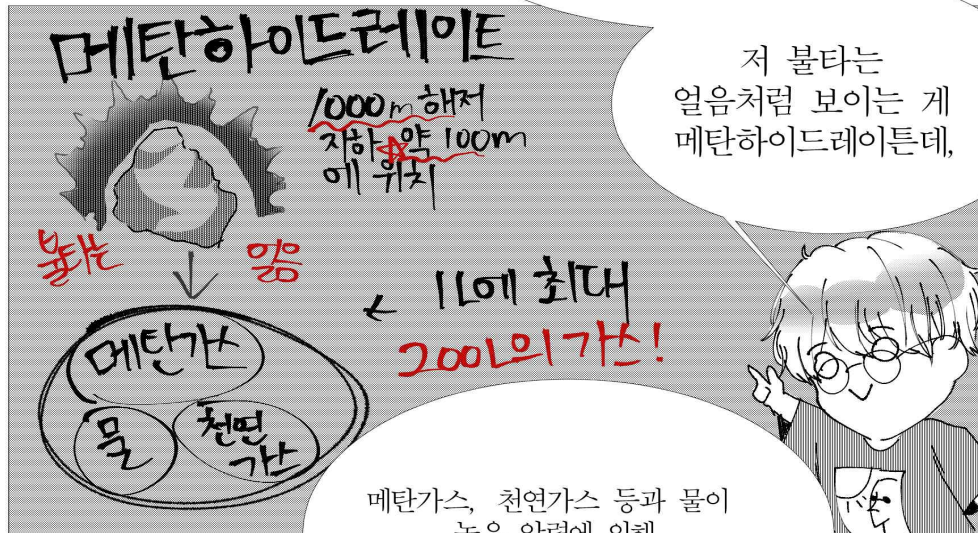


지금부터

독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메탄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설명할게.



이산화탄소량도 적은 깨끗하고 매장량 많은 에너지야.





또 얼마나 많은  
수산자원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아까 니가 말한  
'쓸데없는 애국심'에 관한 거야.



고종의 칙령 41호,  
세종실록지리지 등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  
우기고 있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독도를 잃게 되면,  
우린 독도와 함께 한  
오랜 역사를 잃게 되는 거야.

우리의 역사를 지키려는 마음이  
정말로 쓸데없는 애국심이라고 생각해?

...



끝~~~